

'엔데믹'에 외식 늘자 배달라이더 증가세 꺾였다

통계청, 고용조사...광주 음식점·전남 농업 관련 산업 취업자 최다 주점·카페·식당 업종 증가세 두드러져...조리사 취업자 역대 최대

코로나19로 급증했던 배달원 수가 올 상반기 감소한 반면, 외식의 증가로 조리사 수가 역대 기록을 보였다.

광주는 음식점 취업자가 6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은 19만7000명이 농업 관련 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조리사 취업자 수는 113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견줘 8만3000명 증가했다.

직업소분류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조리사 수는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규모로 늘어났다.

상반기 기준 2019년 98만8000명이었던 조리사 수는 2020년 96만4000명으로 줄었다가 2021년

102만7000명, 지난해 105만6000명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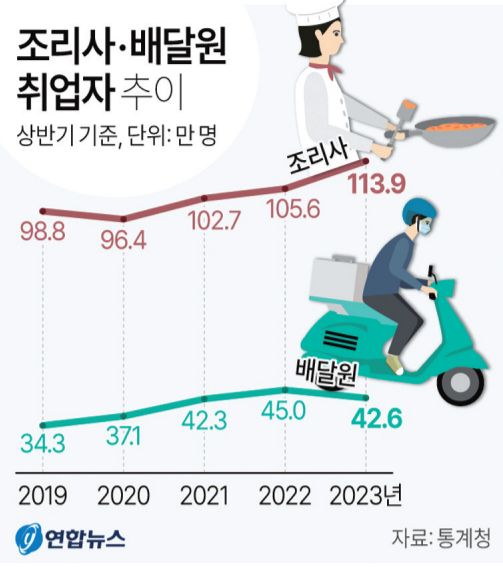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도 58만1000명으로, 6만2000명 늘었다.

반면 배달원 수는 2만4000명 줄어든 42만6000명으로, 코로나19 이후로 첫 감소세를 보였다.

상반기 기준 2019년 34만3000명이었던 배달원 수는 지난해 45만명까지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한 바 있다.

방역 조치 해제로 외출과 외식 소비가 늘면서 관련 직업군 취업자 수는 늘고, 배달업 종사자는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그밖에 행정사무원(6만8000명), 청소년·환경미화원(5만명), 경영 관련 사무원(4만7000명) 등도 증가 폭이 컸다.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는 5만8000



명, 비서 및 사무 보조원은 5만7000명, 매장 판매 종사자는 5만5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도 주점, 카페, 식당과 관련한 업종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산업중(중)분류별 취업자는 '음식점및주점업' 211만 8000명(7.4%), '소매업(자동차제외)' 201만 6000명(7.1%), '교육서비스업' 190만 7000명(6.7%) 순으로 많았다.

'음식점및주점업' 13만명, '사회복지서비스업'은 9만 1000명 순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대구, 인천, 경기도는 '소매업(자동차제외)'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았고, 광주와 부산은 '음식점및주점업', 대전은 '교육서비스업', 울산은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세종은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강원은 '사회복지서비스업'이 많았다.

광주는 전체 취업자 77만명 가운데 '음식점및주점업'이 작년보다 5% 증가한 6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 서비스업' (5만5000명), '소매업(자동차제외)' (5만4000명) 순으로 많았다.

전남은 103만5000명이 취업했는데 농업이 19만 7000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이 10만 1000명, '음식점및주점업'이 7만5000명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초 오미크론 변이 확산

으로 해당 산업의 취업자 수가 꺾였다가 올 상반기에 다시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영향으로 연관된 직업인 조리사,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가 늘었다"고 덧붙였다.

임금수준 별로는 300만원 미만의 근로자 비중이 줄었다.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200만~300만원 미만 이 33.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400만원 이상 24.0%, 300만~400만원 미만 21.3%, 100만~200만원 미만 11.9%, 100만원 미만 9.1% 순이었다.

400만원 이상, 300만~400만원 미만은 1년 전보다 각각 3.9%포인트(p), 1.8%p 올랐다.

100만~200만원 미만, 200만~30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은 4.0%포인트, 1.4%포인트, 0.3%포인트씩 하락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 명목 임금과 관련해 고임금이 늘고 저임금이 주는 경향성은 2013년 이후 계속 보인다"고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주부 '농촌체험 프로그램' 인기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는 17일 광주시 북구 충효동 평촌마을에서 고향주부모임 회원들을 대상으로 '주부농촌체험단' 활동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단감 수확 체험과 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구성된 시골밥상 차리기 등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즐겼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도시가스 안전하게 사용해 우리 가족 지켜요”

해양에너지, 시민안전체험한마당 안전체험 부스 운영

해양에너지는 지난 7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시민안전체험한마당 행사에서 안전체험 부스를 운영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행사는 대한안전연합과 안전생활실천연합, 해양에너지,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적십자사 등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 11곳이 함께 참여해, 안전문화 홍보에 나섰다.

해양에너지는 가스누출 점검 체험과 도시가스 누출 시 응급조치, 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 등 가스안전 전반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했다.

정광원 해양에너지 안전기술본부장은 “미래의 도시가스 사용자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양

한 교육과 지속적인 안전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코스피	2460.17 (+23.93)
↑ 코스닥	820.38 (+9.84)
↑ 금리 (국고채 3년)	3.991 (+0.018)
↓ 환율 (USD)	1353.60 (-0.10)

광주은행, 카카오페이서도 'KJB모바일아파트대출' 판매

최대 연 1.2%P 금리우대 혜택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17일 카카오페이와 제휴해 'KJB모바일아파트대출' 판매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KJB모바일아파트대출은 영업점 방문이 필요 없는 비대면 대출상품으로 ▲신규 구입자금 ▲대출 갈아타기 ▲생활안정자금 등의 목적으로 최대 10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매년

최초 대출금의 10% 범위 내에서 면제된다.

500억원 판매한도로 제공되는 최대 연 1.2%포인트 금리우대 쿠폰 등 최저 연 4.48%의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

광주은행은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카카오페이 제휴를 시작으로 핀다, 벅크몰, 네이버파이낸셜 등 주요 빅테크 플랫폼을 통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단위의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 판매를 늘릴 계획이다.

광주은행은 앞서 토스뱅크와 함께 은행업계 최초로 공동대출을 추진하기도 했으며, 지난 2019년에는 토스와 함께 신용대출 금리비교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빅테크 플랫폼과 전략적인 제휴에 대해 적극 나서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인터넷뱅킹(www.kjbank.com), 스마트뱅킹(APP), 모바일웹(WEB) 또는 가까운 영업점과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